

보도 일시	2022. 12. 7.(수) 12:00		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	책임자	과장 정유근 (02-2100-4161)
	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	담당자	사무관 현승우 (02-2100-4167)

**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 ‘보탬이(보탬e)’ 확정**  
- 366개 후보작 중 1차 심사와 대국민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 -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‘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’ 명칭을 “보탬이(보탬e)”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.



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

- “보탬이(보탬e)”는 보태어 도와준다는 의미와 전자시스템을 의미하는 ‘이(e)’를 덧붙여, 지방보조금을 통해 국민 생활에 보탬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.
-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‘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’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(2022년 54조 원 규모)의 교부·집행·정산 등 업무 전(全) 과정을 전자화하여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8월 1일, ‘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’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능을 일부 서비스하고 있다.
- 오는 2023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 집행과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를 포함한 2단계를 개통할 예정이며,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등을 포함한 전면 개통은 2024년 1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.

-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, ‘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’이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대표 창구임을 홍보하기 위해 온(ON)국민소통을 통해 명칭 공모를 시행했다.
- 9월 6일(화)부터 9월 20일(화)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366개(중복제외)의 후보작이 접수되었으며, 1차 심사를 통해 상위 10개의 명칭이 후보로 선정됐다.
  - 이어서 대국민 심사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“보탬이(보탬e)”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최종 명칭으로 선정되었다.
  - 최종 당선작은 ▲대상(100만 원) : 보탬e(보태미), ▲최우수상(30만 원) : 지방도움e, ▲우수상(20만 원) : 지방보조금 알림e, ▲응원상(1만 원) : 지방보조금 속속들e 등 25개 등으로 당선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으로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.
- 행정안전부는 명칭이 확정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보조금 집행과 대국민 정보공개 등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-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보탬이(보탬e)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및 국민께서 기억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